

다산포럼



이도홍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종일 입가에 땀도는 노래의 한 소절처럼, 요새 다산의 '애절양(哀絶腸)'의 시구가 자주 떠오른다. 여러 차이가 있지만 백성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 불평등과 사회 격차는 점점 심화하는데 장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 환율은 치솟는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육박한다니 반토막이 난 소득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이자를 떼어내야 할 것인가. 관료들의 잇따른 수탈에 성기를 자른 그때 농부처럼, 10만 명당 25명이 넘는 이들이 버티다가는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진대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괴물이었다. 이는 앞으로 여러 상실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서민,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요구를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 배정으로 바꿀 이들이 사라졌다. 이제 과연 누가 이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사회문화의 장에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답문을 형성하는 것도 힘을 얻기 어렵다. 정치도 사라진다. 필자는 정치를 '정

폐허에서도 진보의 꽃은 피어야 한다

당성에 근거한 헤게모니와 권력을 이용하여 가치를 분배하는 기술'로 정의한다. 돈, 권력, 정보, 정책 등 모든 가치를 두 보수 야당이 독점하고 경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두 정당이 그 비율을 놓고 경쟁하거나 여당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하는 행적만 난무하게 된다. 무엇보다 유투피아가 사라진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진보가 집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국회에 원내 교섭단체마저 만들지 못했는가. 분단상황에서 모든 진보적 담론이나 주장을 '빨갱이'나 '종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제하는 지배층의 전략이 먹었다. 미국과 가톨릭 동맹은 진보적 세력이나 담론을 거세시키면서 대미 종속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40년을 지나면서 "부자 되세요"라는 참으로 천박한 광고가 인기를 얻을 정도로 대중들은 시나브로 경쟁심과 이기심, 화폐 중심의 욕망을 점점 내면화하였다. 보수 양당은 권력과 가치를 양분하며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게다가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며 공론장을 해체했다.

객관적 조건을 탓할 일이 아니다. 진보도 이참에 처절하게 성찰해야 한다. 정파로 분열되어 서로 배제의 언어만 반복했다. 국민이 귀담아들을 만한 담론 투쟁도, 신랄한 이데올로기 비판도, 신선한 정책 제안도 하지 못하였다. 모두 중앙에서 열매를 따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멀리 보고 현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땀과 땀 뿌리 조직을 건설하는 데 등한하였다. 공부하지 않아 대다수가 대학 시절, 혹은 산업사회의 문제의식에 머

물려 있다. 올곧은 투쟁은 늘 섬이 되고 연대 정신을 상실하였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 중심의 욕망을 증대하고 소비향락주의에 몰려 '자본가적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그나마 투쟁하는 동지들은 현안에 급급하여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변혁의 꿈을 포기하고 민주당과 수시로 연합하여 진보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폐허에서 진보의 꽃을 피우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산은 "세상의 그릇됨을 근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늘 힘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 가슴 아파하고 차마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뒤에야 비로소 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공감과 연대'는 가장 인간다운 본성이자 진보가 '강단 좌파'로 전락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주체들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노동)/녹(환경)/보(소수자) 연대를 한다. 불평등의 극대화, 기후위기, 패권의 변화와 전쟁의 위기 등 복합 위기는 모두 한계에 이른 자본주의의 모순이 부문별로 재현된 양상이기에 대안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향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되, 목표를 수정하지 말고 여건과 역량을 따라 함께 정거장을 하나씩 점유하는 운동을 하면 언제인가 목적지에 도달 하리라. 이제라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일터와 마을에서 풀뿌리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진력한다면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어두울수록 밝은 빛에 반짝이고 길이 험할수록 함께 걸어야 밝아 있다.

청춘 특특

채우기 위해 깎는 것



정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2년

가장 완벽한 도형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정사각형을 누군가는 원형을 말하지만 각자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도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인간은 무엇일까? 완벽한 인간이란 육각형을 깎 채울 수 있어야만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을 두고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육각형의 꼭짓점에 각각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육각형을 깎 채울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완벽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이 잣대가 가혹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정의된 이 도형에 자신을 가둬둔 채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육각형의 완만한 울타리가 아닌 자꾸만 뾰족뾰족해지는 자신의 울타리에 당근 없는 채찍질로 스스로를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다.

원래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사

용했던 말이라고 한다.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을 기준으로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상대를 찾기 위함이었다. 이 육각형은 퍼지고 퍼져 연예인을 거치고,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다.

육각형의 꼭짓점에 세워진 기준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모두가 선택하는 완벽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또 몇몇 기준들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기에 육각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자신을 모질게 대하며 육각형 인간이 되고자 살아가는 것은 감히 틀렸다 단언한다.

늘 시작은 단순하다. 아마 처음 대중적으로 다가온 의미는 큰 무리 없이 내 땀을 골라내려는 그런 사람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 육각형은 커지고 커져 완벽함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기준표가 돼 버렸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자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평상시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정의할 마땅한 기준이 떠오르지 않기에 육각형이라는 통상적인 울타리에 자신을 가둬버린 것이다. 누가 정한 기준인지도 모른 채 그에 맞지 않는 자신을 채우려 또다시 자신

을 깎아내는 데 여념이 없다.

부족해 보이는 스스로를 야겨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안다. 당장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훨씬 많이 안다. 또한, 그러한 단점을 쉬이 나의 일부만으로 포용해 주고 싶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늘 생각한다. 완벽한 나를 아끼는 일은 너무나도 쉽다. 이미 잘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그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 줄 아는 때야말로 진정한 스스로 아끼는 법을 아는 때일 것이다.

물론 적당히 남과 비교하며 평균을 맞추는 법 또한 알아야 한다. 평균이라는 것은 나의 발전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니 말이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에 치우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면 진실된 성장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건강한 새싹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결국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기에 나의 사회적 가치와 비취짐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스스로를 깎아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차피 고민하고 깎아 가야 하는 거라면 먼발치에서 바라봤을 때 나인지 너인지 모를 똑같은 육각형이 아닌 나만 할 수 있는 '나'라는 조각을 깎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덕질 관광과 사람 여행

관광추진조직(DMO) 공모사업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선정되었다. 여기에서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란 지역주민, 지자체, 관광사업체 등 다양한 지역관광 이해관계자들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광개발을 주민주도로 이끌어 가는 지역관광협의체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방안으로 '풀뿌리 관광조직'인 DMO가 유용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DMO정책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DMO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인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역특화 관광체험 프로그램인 세토우치 살풍을 통해 타 지역 청년이나 귀농·귀촌인 등 생활인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오카야마현 세토우치 DMO도 그렇고, 오지마을인 아마나시현 고스게촌의 마을소멸 위기를 분수촌민 뱀바시제도 등 다양한 관계인구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미나모토 DMO도 그렇다. 요즘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DMO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동구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사업 아이템이 눈길을 끈다. 하나는 덕질관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여행이다. 사실 덕질관광이나 사람여행은 관광학 이론서에도 없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덕질관광은 오락후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대세 트렌드인 취미여행에 기반한 발상이다. 광주 동구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주민 덕질자원을 바탕으로 인근지역의

다양한 덕질수요 관계인구를 유입시켜 동구를 호남권의 덕질 핫플로 조성하는 것이다. 동구에는 독특하게도 코바늘, 전통주, 소셜다이닝, 업사이클링, 뒷담화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주민 덕질모임이 자리잡고 있다. 동구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덕질관광의 요지암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동구에는 덕질자원과 같이 명인·명장, 생활의 달인, 독립서점 등 자신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가진 독특한 지역주민인 사람자원이 많이 있고 이와 연계된 장소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흔한 관광지의 방문이 아닌, 지역명물인 사람과의 만남을 타깃으로 하는 사람여행을 통해 체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동구는 독특하게도 독립서점, 명인·명장 작업실, 예술의 거리 갤러리, 노포집, 힙한 카페 등 사람여행 콘텐츠가 풍부한 인적 자원의 중심지이다. 사람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떠나는 사람여행은 오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상의 심과 안식을 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사람' 문제를 역설적으로 동구의 특화된 사람자원, 즉 지역의 '사람'으로 해결하는 구상이다. 또한 이는 사람자원으로 세우는 휴먼관광도시인 광주 동구에서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동구 DMO는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국내 대표의 덕질관광과 사람여행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가 어려운 지방소멸시대에 우리가 DMO사업에 희망과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社說

전남권 국립 의대 공모... '5인 회동' 주목한다

전남권에 국립대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현안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시 전남권역 국립 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뽑을 수 있도록 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문을 통해 증원을 요청했는데 대상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이다.

전남도는 정원 요청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공모 절차를 거쳐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5개월의 용역 기간을 거쳐 오는 9-10월경 추천 대학 선정 결과를 정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국립 의대 신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인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목포시장과 순천시장, 그리고 전남지사가 참여하는 5자 회동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해당 대학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12일

목포와 순천의 중간 지점인 보성군청에서 5자 회동을 하라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목포와 순천을 각각 방문해 해당 지역 총장과 시장을 만나 전남도의 국립 의대 공모에 참여할 것을 설득했지만 순천지역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5자 회동을 제안한 이유는 이해 당사자간 핵심타협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따라서 전남도에 법적 공모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의 참석 여부가 관건이다. 순천지역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남도 공모에 대한 적법성을 주장하며 비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전남도에 추천을 위탁한 터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은 무작정 거부할 경우 명분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5자 회동이 전남권 국립 의대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지 가늠한다.

의대 교수 주1회 휴진...교수들 환자 외면 안돼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의대교수들이 지난주 우려와 달리 '주 1회 휴진'에 돌입하지 않았다.

조선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었그제 조선대 병원 의대교수들과 논의의 거쳐 '주 1회 정기 휴진'을 보류했다. 전국적으로 '주 1회 정기 휴진'이 확산하고 있지만 환자 불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52시간 준법근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사직서 제출 건도 의대생들의 유급조치나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3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병원측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설득에 나서 시행을 일단 보류했다. 이들은 외래 예약 환자들에게 휴진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외래진료 예약 환자들에게 공지를 한 뒤 금요일을 정기 휴진일로 운영하는

진료과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남대는 물론 조선대 교수들이 두 달 넘게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리를 메우느라 심심 피로가 누적돼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의료진의 극한 피로 때문에 환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 필요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남대병원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휴진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의료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도 희석될 것이다.

정부가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마당에 의료계도 단란한 목소리로 정부와 소통을 나서야 한다. 맹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의료계가 정부와 소통을 단절하고 환자 곁을 떠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無等鼓

고(故) 박완서(1931~2011)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아들의 죽음을 겪으며 먼저 기뻐한 일이다. '자식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 일기'라는 부제 만큼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고통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참척을 당한 어머니에게 하는 조의는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리나라 위로 일지라도 모른 고문이요, 겉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자가 지 못하게 하련만',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 구구하여 읊조를 써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참사로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 아빠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지 1년 6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채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뒤늦게 통과된 만큼 진상규명이 시급한 채 채상병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팽배하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자식 잃은 슬픔

세월호 이후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데도 정부 행태는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선 민심도 애써 외면하는 듯 하다.

아들·딸이 떠나주던 카네이션도 없이 어버이날을 보내고 변변한 외식도 하지 못한 채 가정의 달을 지내며, 화려한 5월의 꽃들을 보며 웃을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엄마-아빠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국가와 대통령의 책무다.

지난 2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기고



문창현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옛날 속담에 '사람이 많으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다. 어느 지역이나 아무리 가진 자원이 없어도, 사람이 많아서 서로 힘을 합치면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곧 그 지역의 힘이라는 것이다. 이를 현대에 적용하면 요즘 인구감소로 지역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려운 시기에 역설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광주의 심장이자 행정·경제·문화의 1번지로 총장도 전성기를 구가했던 원도심 동구는 근래 들어 도심 공동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상권 쇠퇴로 지방소멸 위기는 침체에 빠진 듯 하다. 그럼에도 동구는 인구감소가 가져온 위기 속에서도 아이리니하게 풍부한 사람자원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려는 희망에 불꽃이 있다. 동구는 고즈넉한 원도심 골목마다 펼쳐져 있는 다양한 인문자원과 함께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다채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아귀자기한 사람 이야기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최근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2024년 지역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5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